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20년 09월 15일 발행(256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03 ISSUE
최근 일본에 본사를 둔 모 해외직구 쇼핑몰 업체가 국내에서 도수안경의 조제 판매를 시작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03 ISSUE Ⅱ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무료로 참가하는 온라인 디옵스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04 NEWS IN NEWS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안과의 초음파검사를 안경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처리한다고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www.nadokorea.co.kr

좋은 제품 + 착한 가격
나도코리아

안경공구/안경원 기계/광학기기/소모품/안경부속/안경줄/
디스플레이/가방/안경케이스/안경서적/판촉물/안경테/
선글라스 등 안경원 취급 모든 제품 구비

나도코리아 TEL.053.353.9992 / FAX.053.351.4063



안경피팅 ACADEMY

EYE TAILORING MASTER 강좌 오픈

안경피팅 전문가

FITTING : 안경의 꽃, 안경의 완성

그 피팅 만족하십니까?
어지럽고 덜보인다는데 안경테만 보면서 땀흘리고 계십니까?

정밀한 피팅기술은 안경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쾌적함과
광학적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형 안경원 운영 / ㈜안경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30년간 약 10만여명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해온
피팅전문가가 직접강의하는 명품강좌

강좌대상

- 안경원에서 피팅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 하는 모든 안경사
- 안경원 성공 창업을 위해 피팅기술이 필요한 안경사
- 피팅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주는 곳을 찾고 있는 안경사
- 안경원 취업을 앞둔 안경광학과 학생

교육과정

- **안경피팅 전과정** (피팅광학, 피팅해부학, 설계, 피팅실무, 소재별피팅, 클레임 해결 등)
- 실무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안경피팅 기본 과정부터 체계적인 실무 전문가 맞춤교육
- 다양한 첨단 입체얼굴모형을 통하여 더 가까이, 더 자세하게 배우는 임상실전 피팅 스킬UP

교육일시 : **10월 매주 수요일** (1개월 과정) / 교육시간 : **오전 10:00~12:00**
모집인원 : **10명** / 수강료 : **30만원** / 교재비+안경테(실습용)+피팅공구 : **20만원** / 교육특전 : **수료증 지급**
교육장소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73, 3층 안경피팅아카데미**

문의전화 : 1811-7576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20년 09월 15일 발행(256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kabc.or.kr

beb 안경원 도매 전문 사이트
www.beb.kr
(주)비아리코 서울 중구 퇴계로 4길 16 FS빌딩 대표 02.319.2300 매장 02.319.0718

캣츠아이에서 다양한 컬렉션 대공개!
국내·외 유명 브랜드
다량 확보 캣츠아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 최저가로 판매!
다양한 수입안경 / 선글라스 및 국산테
문의 010.9844.8255

충격! 국내 온라인서 도수안경 제조 • 판매

국내 소비자에게 일본에 본사 두고 해외직구 이용해 도수안경 유통… 현 국내법으로는 제재 수단 전무

국내에서 도수안경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제조 • 판매하는 사이트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도쿄에 주소를 두고 있는 A社가 지난 8월부터 처방전을 받아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도수안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해외직구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던 A사가 취급품을 확대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도수안경을 불법 판매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고객이 안경테를 선택한 후 카카오톡으로 캡처 받은 처방전으로 도수테를 제조해 택배로 주문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도수안경을 안경원 이외의 온라인으로 제조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A업체의 경우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 국내 실정법상 마땅하게 단속할 방법이 없어 안경사의 대응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일선 안경사들의 보다 빠른 신고 중요

국내 안경사에게 충격을 주는 A사의 도수안경 판매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이 A사 사이트에서 안경을 선택하면 화면에서 렌즈 장착(제조) 여부를 묻는다. 이어 고객이 동의하면 '나중에 보내기, 파일 업로드, 내 계정, 나중에 보내기, 수동으로 입력' 등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안경렌즈를 주문한다. 여기서 '파일 업로드'는 고객의 처방전 사진을 업로드하란 것으로, 이를 토대로 안경을 조제해 발송한다는 뜻이다. 또 '내 계정'은 사이트 회원가입 시에 입력한 도수 정보를 뜻하는데,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나중에 보내기, 수동 입력'이다. 즉 '나중에 보내기'는 주문 후 처방전을 보내준다는 말이고, '수동 입력'은 자신이 직접 도수를 입력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고객 스스로 렌즈 도수를 직접 입력함으로써 과교정 등의 위험이 뒤따라 결국 국민 안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시장에 도수안경을 판매하고 있는 A社의 도수테 제품 리스트 화면(좌)과 안경렌즈 도수 기입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A사의 페이지.

국내 한 안경광학과의 모 교수는 "안경을 조제 • 처방하려면 도수 이외에 PD, ADD 등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온라인에서 주문받아 도수안경을 조제 • 판매하면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확률이 높아진다"며 "따라서 국내 안경사는 사이트를 발견한 즉시 신고하고, 관계당국은 이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동대학교 안광과의 유형석 교수도 "도수안경을 주문받아 제조하는 A사의 해외직구는 책임 주체가 취약할 뿐더러 안경을 계속 관리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한 구조"라며 "특히 이런 유형의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면 국내 안경원은 살아남기 힘들므로 강력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보다 쇼핑몰 도수안경 가격 다소 저렴

현재 국내법으로는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도수안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외직구에서 도수안경을 주문 • 판매하는 것은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 현재의 국내법 체계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이 유일하다.

대전의 한 안경렌즈 유통사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런 사이트를 폐쇄시킬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복지부인데, 문제는 현 정부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를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서 안경사의 희망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서울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안경사제도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써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며 "현재 대안협 중앙회 법무팀이 A사의 불법판매를 인지한 후 복지부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접촉해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사 사이트는 M, G 등 세계 유명 브랜드의 도수테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가격은 국내 안경원과 비교했을 때 20~30% 이상 저렴하다. 하지만 안경렌즈는 B, N, Z 등 외국산 브랜드의 렌즈만 취급하고 있었다. 더구나 A사는 소비자들이 안경렌즈를 쉽게 구분 · 구입하도록 렌즈를 1~4번 압축한 렌즈로 표기해 4~30만원에 판매하고, 하드코팅과 블루라이트는 8~10만원까지 별도 청구하고 있었다. 결국 A사는 안경테는 국내보다 저가격을 내세우고, 안경렌즈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해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특별취재반

tip.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는 실정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2., 2016. 5. 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톡톡톡

■ "안경사국가시험의 접수가 시작됐다는데 맘이 싱숭생숭합니다. 선배로서 안경 판매의 자랑꺼리를 없앤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안경원 원장)

■ "내년 7월에 시행되는 물환경보전법으로 지금쯤 안경원은 무슨 기기라도 선택해야 하는데, 대한안경사협회는 아직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충남 천안시의 한 안경사)

한국 안경의 새 판로 '온라인 디옵스' 개최

진흥원, 11월 2~20일 온라인 상품관 오픈… 참가업체와 바이어의 소통 공간 마련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진광식)이 오는 11월에 'EYEWEAR BOOM-UP PROJECT 디옵스 온라인 상품관'을 개최한다. 올해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대신해 11월부터 3주간 '아이웨어 붐 프로젝트 디옵스 온라인 상품관(온라인 디옵스)' 행사를 오픈하는 것이다.

진흥원의 온라인 디옵스는 웹페이지를 통해 참가업체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로 진흥원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온라인 플랫폼에서 볼 수 없었던 국내 하우스브랜드들과 원천기술 업체가 참여해 제품 수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특히 진흥원은 이번 온라인 디옵스 행사가 코로나19로 교류가 중단된 참가업체와 바이어들이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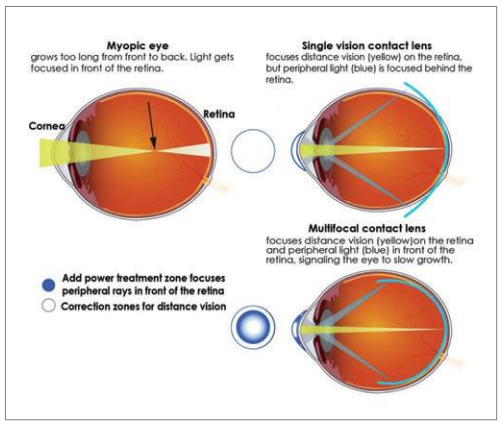
진광식 원장은 "원장에 취임한 후 30여 업체를 방문한 결과 당초 예상대로 문제점은 언제나 현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진흥원은 온라인 디옵스를 개최해 장기 침체에 빠진 K-아이웨어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선보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안경기업과 진흥원이 상생하는 전기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온라인 디옵스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디옵스 홈페이지와 이메일(diops@koia.or.kr)을 통해 신청 ·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3)350-7841



▲ 지난해 개최된 대구국제안경전의 행사장 전경.

‘근시 억제 다초점 콘택트렌즈’ 연구 한창

美 오하이오대학 연구진, 근시 어린이 287명 대상으로 근시 속도 최대 43% 억제 확인



다초점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면 어린이의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대학 연구진은 만 7세부터 11세 사이 근시 어린이 2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다초점 콘택트렌즈의 초점력이 강할수록 근시로 악화되는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근시가 되면 가까운 사물은 볼 수 있지만 원거리 시력이 약해지는데, 다초점 콘택트렌즈의 중앙부는 망막에 초점을 형성해 근시의 원거리 시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때 눈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막아 주는 것은 다초점 콘택트렌즈의 외측부로, 이 외측부는 주변 광선을 망막 앞으로 모으는 초점력(focusing power)을 강화시키고, 이처럼 망막 앞에 초점이 형성되면 눈의 성장이 둔화한다는 것이 동물실험에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단일 초점안경이나 보통 콘택트렌즈는 망막 뒤에 초점을 형성해 안구가 계속 성장하게 자극하는데, 실제로 근시 진행과 안구 성장을 늦추는 효과는 다초점 콘택트렌즈의 초점력에 비례해 커졌다.

연구진이 3년간 근시가 진행한 정도를 보면 렌즈의 초점력이 강한 그룹이 평균 −0.6 디옵터, 초점력이 중간인 그룹이 −0.89 디옵터, 단일시(single vision)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그룹이 -1.05 디옵터였다. 이는 3년간 강한 다초점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면 최고 43% 가량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팀의 관계자는 “하지만 여전히 다초점 콘택트렌즈를 어느 정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콘택트렌즈 사용을 중단했을 때 근시 진행을 늦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될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립보건원(NIH) 산하의 국립연구소(National Eye Institute)가 지원했고, 관련 논문은 지난달 11일 미국의사협회 저널(JAMA)에 게재되었다.

‘정 교수 안경은 초고가’ 보도 기자들 고소

조국, 정 교수 안경은 고가 아닌 국산 ‘라디오아이즈’ 주장…명예훼손으로 기자들 고소



조국 전 장관이 지난 7일 부인인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사진)가 ‘200만원대의 안경을 착용하고 법원에 출두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가 펜앤드마이크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방송인 뉴스데일리 베스트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3일 펜앤드마이크는 ‘정 교수가 고가인 200만원대의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고, 이틀 뒤인 10월 25일 뉴스데일리 베스트도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교수가 착용한 안경은 중저가 국산안경 브랜드인 ‘Venerdi 1409’’로써 ‘정 교수가 ‘린드버그 혼’을 착용했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기자들과 유튜브 관계자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전, 정 교수 또는 변호인단 등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기사 전체의 논조를 고려해보면 피고소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 달성에 급급했다’고 적었다.

한편 당시 정경심 교수가 착용한 안경은 국산 브랜드인 라디오아이즈에서 출시한 베네르디 14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과에서 검안 안경사들 입지 ‘흔들’

복지부, 안과의 초음파 검사 급여화시킨 후 검사자를 방사선사로 규정 고시… 안과서 검안 안경사 퇴사 늘듯

안과 병원에 취업해 검안사라는 명칭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안경사들이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발표, 이에 따라 지금껏 안경사가 안과에서 주도적으로 행하던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들이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묶여 있던 안과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 항목으로 변경하며 초음파 검사자를 방사선사로 특정한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이번 고시는 ‘안(안구 • 안와)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 • 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이란 세부사항을 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이란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달 중순 회원들에게 배포한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공지’에서 ‘이번 고시의 시행 주체는 의사나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검안사와 방사선사를 동시에 고용하기에 부담스러운 많은 안과들이 검안사를 퇴사시키고 방사선사를 고용하는, 결과적으로 안경사들의 퇴사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검안사학회의 박준호 학회장은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서 현재 안과에서 근무하는 많은 검안사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우리 학회는 협회 김종석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고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안협 중앙회의 교육부회장인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의 전인철 교수는 “시력에 관련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방사선사에게 안과업무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내과, 정형외과 등 다른 많은 진료과도 초음파 검사가 이용되는데, 유독 안과만 특정해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가 한다’고 고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회의 한 상임이사는 “현재 대안협은 근용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현안에 집중한 상황으로 이번 복지부 고시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검안사는 명칭만 다를 뿐 안경사가 분명하고, 무엇보다 안과에서 안경사가 밀려난다는 것은 곧 ‘안경사 업무영역의 축소’를 의미하기에 이번 고시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No.1 안경체인 '다비치안경'과 함께 하세요!

다비치는 더 **다비치답게**, 안경사는 더 **안경사답게**



3년내, 매출 3배 성장을 목표합니다

• **전략적 잠재시장 공략**

누진·난시·컬러 콘택트렌즈 잠재시장
공략을 통한 매출 3배 전략,
다비치가 도전합니다!



안경사 전문화에 앞장 섭니다

• **인재의 요람 다비치 사관·공채**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발굴 육성 및 전문 인재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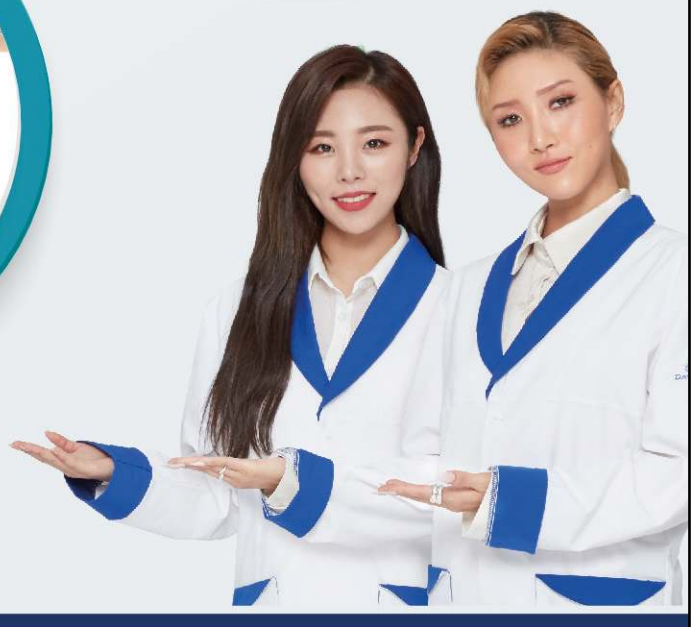
•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안경사의 전문성과 점주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



어려움은 나누고 함께 성장합니다

• 최대 **3억** 창업 대출 프로그램
• 업계 최초 **법률 상담** 지원





다비치안경체인
Davich Optical Chain

다비치안경 릴레이 오픈중

1월 구리교문점	2월 가오동홈플러스앞점
3월 창원대방점	4월 전주에코시티점
4월 평택소사벌점	5월 대구칠곡3지구점
7월 신기시장사거리점	8월 안양중앙시장옆점

09월 안양비산점
09월 의정부금오점 (9/25 예정)
09월 하남미사역점 (9/25 예정)
10월 용인사거리점 (10/23 예정)
10월 의정부역점 (10/30 예정)

[오픈예정지역] 해당지역 안경사님께 오픈 우선권을 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 고덕역 / 상일동역 / 둔촌동역 / 강동구청역 **강남구** : 압구정 / 강남구청역 / 강남역 / 수서역 / 논현동 **강서구** : 가양역 / 화곡역 / 까치산역 / 방화동 **금천구** : 가산디지털 **관악구** : 서울대입구역 / 낙성대역 / 난곡사거리 **광진구** : 건대입구역 / 자양사거리 / 군자역 / 아차산 **구로구** : 구로역 / 대림역 / 개봉동 / 오류동 / 신도림 /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 : 노원역 / 수락산역 / 상계역 / 마들역 / 중계학원가 / 공릉역 **동대문구** : 회기역 / 청량리역 / 전농동사거리 **동작구** : 신대방동 / 상도 / 흑석역 / 남성역 / 노량진 / 장승배기 **마포구** : 공덕역 / 홍대입구역 / 광흥창역 / 신촌역 / 합정역 / 망원동 / 디지털미디어시티 **서대문구** : 홍제역 / 가좌동 **성동구** : 왕십리역 / 금호동 / 성수동 **은평구** : 은평뉴타운 **서초구** : 고속터미널 / 반포동 / 교대 / 남부터미널 / 양재 **성북구** : 석계역 / 석관동 / 종암동 / 성신여대입구 / 한성대입구 / 안암 **송파구** : 방이동 / 거여역 / 개롱역 **영등포구** : 당산역 / 영등포구청 / 문래 / 대림동 **종로구** : 종각 / 종로3가 / 창신동 / 경복궁역 **중구** : 신당역 / 약수 **중랑구** : 신내동 / 사가정역 / 동부시장 **인천** 송도신도시 / 동춘동 / 신현동 / 석남동 / 소래포구역 / 서구청 / 서창지구 / 영종도 / 제물포 **경기 광명** : 광명사거리 / 철산역·소하동 **부천** : 원종동 / 소사본동 / 송내역 **성남** : 모란역 / 미금역 / 정자역 / 오리역 **수원** : 정자동 **시흥** : 은계지구 / 장현지구 / 목감지구 **안산** : 선부동 / 고잔동 **의정부** : 회룡역 **안양** : 평촌학원가 / 범계 / 인덕원 **용인** : 성복동 / 상현동 / 보정동 / 구성마북지구 / 기흥구청 / 동백지구 / 역북지구 **파주** : 금촌동 / 금릉역 / 운정지구 / 문산읍 **고양** : 일산동 / 주엽역 / 마두역 / 탄현 / 풍동지구 / 삼송지구 **김포** : 걸포지구 / 풍무지구 **과천** : 과천시청역세권 **남양주** : 별내신도시 / 도농역 / 갈매지구 **화성** : 동탄제2신도시(확정) / 봉담지구 / 화성시청신도시 **동두천** : 지행역상업지 **양주** : 회천지구 / 옥정지구 **양평** : 시장~터미널 **의왕** : 의왕역 / 경수대로변 **안성** : 공도 **평택** : 고덕지구 **강원** 원주 / 홍천 / 태백 **대전** 월평동 / 도마동 / 노은역 **충북** 충주 / 청주(복대동) / 옥천 / 영동 **충남** 부여 / 금산 / 배방 / 계룡 **경북** 구미 옥계동 / 영주 / 상주 / 문경 **전북** 군산 나운동 **대구** 지산동 / 다사읍 / 동호지구 / 화원삼거리 / 황금동 **광주** 금호지구 / 상무지구 / 진월동 / 봉선동 / 일곡지구 **울산** 화봉동 **전남** 광양 / 여수 여천동 / 목포 남악신도시 **경남** 진주 평거동 / 고성 **부산** 부전동 / 연산동 / 명지국제신도시 **제주** 아라동(확정)

[오픈확정지역] 제주아라동 / 동탄제2신도시

[브랜드 대상 내역]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다비치안경!

가맹상담문의 **010-4087-0250** 이메일 문의 가능 jinkjin10@davic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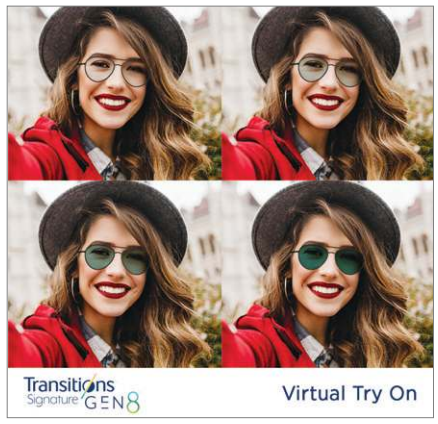
다비치안경체인 Davich Optical Chain · KVISION · 다비치보청기 Davich Hearing Aid · 다비치 홀딩스 Davich Holdings

‘변색렌즈, 온라인에서 체험하세요’

에실로코리아, 고객이 집에서 트랜지션스 체험 서비스 제공… 코로나 대응 마케팅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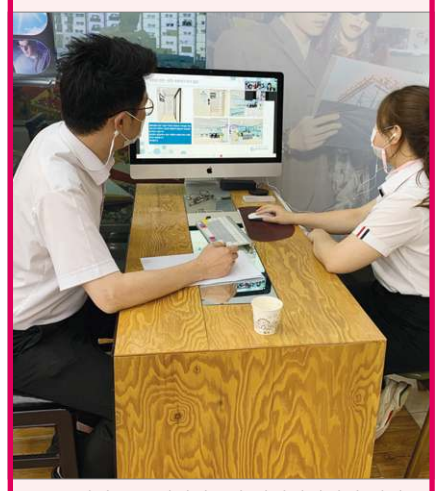
㈜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에서 안경과 변색렌즈를 가상체험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고르는 ‘변색렌즈 트랜지션스 가상체험(Virtual Try-On) 서비스’를 선보였다. 트랜지션스 가상체험 웹사이트(https://www.transitions.com/ko-kr/virtual-try-on/)에 접속한 후 고객이 원하는 안경테나 렌즈 컬러를 선택하고 휴대폰 또는 PC/ 노트북 카메라를 통해 화면에 얼굴을 비추면 가상의 안경테와 변색렌즈를 실제 착용한 것처럼 체험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 에실로의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에서 주로 소비 활동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로 소비자들은 안경원에서 직접 제품을 착용한 것처럼 가상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렌즈 컬러의 선택부터 색상의 농도까지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클래식, 아이코닉, 라운드 등 14가지의 다양한 안경테를 자신의 얼굴형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레이, 그린, 브라운, 에메랄드, 사파이어, 퍼플, 앰버 등 7가지 컬러를 다양한 안경테와 조합해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에실로코리아의 관계자는 “자사의 이번 트렌지션스 가상체험은 코로나19로 홈코노미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집에서 가상으로 안경을 착용해 보는 행사”라며 “자사는 앞으로도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제품 개발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1600-8121

아이세이버, 온라인서 9월 경영자회의



▲ 온라인으로 개최된 9월 경영자회의에 참석한 한 가맹점의 모습.

체인본부, 다양한 프로젝트 점검 높은 참가 속 ‘코로나 후 대응책’ 발표

㈜아이세이버(대표 심재후)의 9월 경영자회의가 지난 8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개된 아이세이버의 경영자회의는 전체 가맹점의 95%를 상회하는 높은 참여 속에 ‘코로나 이후 아이세이버의 대응’이란 주제로 체인본부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다.

하남2지구점의 심연준 원장은 “코로나로 우리 업계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이세이버 본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든든하다”며 “우리 안경원도 체인본부의 슈퍼바이저에게 매장 컨설팅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볼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체인본부의 심재후 대표는 “본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맹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이 더욱 단단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본부가 힘이 되어드리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의 062)454-0500

가디안 항균렌즈, 효자 등극



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등 99.9% 차단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판매 급상승

지난 5월에 개발 출시되어 고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디안의 항균코팅 골프전용 렌즈 K2와 야간운전용 렌즈 Y2가 근래 안경시장에서 효자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항균코팅인 가디안의 렌즈가 런칭 이후 꾸준히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기능성코팅 전문업체인 서울뉴텍옵티컬㈜(대표 송현민)이 개발하여 가디안에서 검사 의뢰한 항균코팅렌즈는 지난 5월 14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2차례 실시한 검사(KCL-FIR-1003:2011 • KCL-FIR-1003:2018)에서 녹농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99.9% 차단되는 검사 결과를 얻었다. 가디안의 한 관계자는 “가을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전망되면서 항균렌즈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유해 세균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근래에 항균렌즈는 안경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318-0251

똑똑한 렌즈도 구입하고… 경품도 받고…

호야렌즈, 신제품 ‘발란시스 KR’ 주문 시 소비자와 안경사에게 기념품 증정

한국호야렌즈㈜(대표 정병헌)의 신제품 발란시스 KR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호야렌즈가 직거래 안경원에만 공급하는 ‘찐 한국인 누진렌즈’ 발란시스 KR이 품질 인증과 안경사의 기술력을 보증하는 제품으로 안경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 특히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안경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호야렌즈는 지난 9월초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문 제품에 한해 이벤트를 실시, 12월에 진행하는 추첨을 통해 2명에게는 누하스 안마의자(약 220만원 상당)를 경품으로 증정하고, 20명에게는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 400명에게는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한국호야는 이와 함께 안경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인증건수가 많은 1등 1명에게는 30만원권 신세계상품권, 2등 5명에게는 10만원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3등 10명에게는 5만원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등이 제공되고, 이밖에 참여한 모든 안경사에게는 아메리카노 기프티콘(1인 1회 한함)을 각각 증정한다.



호야렌즈의 관계자는 “자사는 전국 5대 도시에서 버스광고를 실시하는 등 안경원의 고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사는 앞으로 호야 직거래점의 매출 향상은 물론 안경원의 전문 기술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의 1588-5911

‘레이셀’… 뉴 컬러 3종 인기몰이

바슈롬, 디어 브라운·마르살라 핑크·에쉬 바이올렛 컬러감 최상… 착용감도 우수



㈜바슈롬코리아(대표 김형준)에서 지난 5월 출시한 트렌디 컬러렌즈 브랜드 LACELLE과 LACELLE COLORS의 새 컬러인 디어 브라운과 마르살라 핑크, 에쉬 바이올렛 등 원데이 렌즈 3종이 근래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레이셀 디어 브라운은 컬러렌즈 초심자는 물론 누구나 부담 없이 선호하는 브라운 컬러로 눈빛을 다채롭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최근 스타일링 트렌드인 꾸안꾸(꾸민듯 안 꾸민듯)의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레이셀 컬러스 마르살라 핑크는 부드럽고 러블리한 느낌의 컬러렌즈로, 쉬폰 소재룩과 매치하여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한다.

숙성된 와인 빛깔 같은 깊은 느낌의 마르살라 컬러와 핑크 컬러의 조합으로 자연스럽고도 사랑스러운 눈빛을 표현하는 것. 또한 레이셀 컬러스 애쉬 바이올렛은 신비롭고 몽환적인 스타일을 표현하는 컬러로 서로 다른 스타일의 믹스매치 룩과 어울리면 센스 있고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컬러다.

바슈롬의 관계자는 “3종 컬러 모두 다양한 컬러 패턴과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컬러 처리, 그리고 얇은 엣지 처리로 렌즈를 처음 사용하는 순간부터 착용감이 매우 편안하다”며 “레이셀과 레이셀 컬러스는 무도수 렌즈와 함께 -0.50D부터 -10.00D까지의 도수 구성으로 선택의 폭 이 매우 넓다”고 소개했다.

문의 070-7167-9922

바리락스 칸 시리즈
안경사 프로모션

essilor

대한민국 안경원, 힘내세요!

본 서체는 백범 김구 선생의 필체를 디지털로 복원한
<독립서체 백범김구> 입니다.

광복절 & 한글날 맞이 특별 이벤트!

세계 유일, 한국인을 위한 안경렌즈
바리락스 칸 시리즈 안경사 프로모션에 참여하세요!

내　　용 | 바리락스 칸 시리즈를 일반형 공급가격으로 제공(컴포트 맥스, 피지오 3.0) 및
바리락스 칸 시리즈 1조당 5천원 상품권 제공
기　　간 | 2020년 8월 15일 ~ 10월 31일(오후 4시 주문 접수 기준)
참여대상 | 에실로 전 거래처(대리점 제외)

VARILUX®

세계 판매 1위 누진렌즈 바리락스

essilor

자세한 내용은 담당 영업사원 또는 에실로코리아 고객지원팀(1600-812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안경사협회 • 옵틱위클리 공동 캠페인 / 2020년은 누진렌즈다!⑰

'누진렌즈의 성공적인 판매'를 위한 효과적인 준비는?

누진렌즈 판매 확대는 고객체험이 최고!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누진렌즈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은 어떤 부분이 만족되어야 구매로 이어질까?

안경사 입장에서 이 같은 의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려운 질문이다. 결론적으로 안경사의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제품 구비와 가격 등 여러 요인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것은 체험이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자들의 후기를 참고하거나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하는 것이 보편적인 순서임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누진렌즈 역시 소비자가 구매에 도달하기까지는 다양한 요소를 거치겠지만, 무엇보다 고객이 멀리도 가까이도 잘 보이는 누진렌즈의 특징을 직접 경험하고, 또 자신의 평소에 가졌던 불편함을 '누진렌즈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누진렌즈는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상품이 된다. 고객에게 체험을 통해 만족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누진렌즈 판매는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진렌즈 피팅센터의 구성 요소

그러면 고객이 누진렌즈를 체험하기 위해 전문 누진렌즈 피팅센터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제1조건은 누진과 사무용 TR세트이다 – 누구나 언어적 소통을 통하여 누진렌즈를 판매할 수 있지만 TR세트로 원, 근거리의 선명함과 누진 및 사무용 렌즈의 차이점을 고객이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면 판매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제2조건은 근거리 시표이다 – 대부분 근거리 시표를 사용하지만 더욱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근거리 선명도를 체크하는 방법이다.

제3조건은 여러 가지 체험 기구들이다 – 이중초점과 누진렌즈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비교툴과 누진렌즈 사양별 시야비교표, 개인맞춤 누진렌즈와 일반 누진렌즈의 차이점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기본으로 갖추면 판매가 훨씬 용이해진다.

또한 더 나아가 4차산업 시대에 발맞춰 AR, VR 등을 통해 누진렌즈를 체험하도록 비치한다면 더 많은 고객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누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수록 판매가 용이해지고, 누진렌즈 시장의 저변도 확대할 것이다.

대명광학(주)	essilor	케미안경렌즈	TOKAI	Clear Vision, Better Life 한미스위스광학(주)
DAGAS	VARILUX, Nikon	MAGIC FORM	RESONAS	C3
문의 043)240-4000	문의 1600-8121	문의 055)387-3030	문의 02)337-8666	문의 042)272-8972

케미 안경 렌즈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IR LENS
근적외선 차단렌즈

근적외선 차단

청색광 차단

자외선 차단



www.chemilens.co.kr

후~불어서 입김으로 포그마킹을 확인하세요! 입김 불면 케미 IR렌즈 정품 마크가 보이는 "포그마킹" 최첨단 기술 탑재

다초점 안내렌즈(IOL, 人工水晶體) 의 각종 부작용

원인별 불편증상

- 잔류 비정시 →
  원시, 근시, 난시로 선명도 저하
- 수정체 후낭 혼탁 →
  수술이 장기간 경과한 후 서서히 발생 · 흐림과 눈부심 발생
- 눈물량 저하 →
  건조감, 흐림, 눈부심 발생
- 불충분한 동공 크기 →
  동공이 너무 작아 근거리를 볼 때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흐려 보이거나 동공이 너무 커서 눈부심이 심해지는 부작용 발생(특히 야간 눈부심)
- 인공수정체의 기울어짐 →
  난시 및 수차 발생으로 흐려 보이거나 눈부심
- 파면의 수차 발생 →
  회절에 의한 주시물체의 선명도 저하 및 눈부심과 더불어 전반적인 망막의 결상의 부정확함으로 전반적인 시야의 선명도 저하 및 눈부심을 가중시킨다.
- 공통적으로 양안시 이상이 있을 경우 →
  장시간 근거리 작업이 곤란, 두통 및 피로도 발생

감수 : 검안학박사 김재도

BIG EVENT

개인 맞춤 누진다초점렌즈

업그레이드 이벤트



GALAXY 5를 PRIME PG 가격으로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미스위스광학(주)

공식 취급 대리점

대전·충남·전북 지역

한미C3사업부 T. 042) 283-3737

서울 지역

아이미광학	T.1522-1128
수정광학	T. 02) 776-3701
아이옵티칼	T. 02) 812-9090
㈜아이샘옵텍	T. 02) 755-4745
㈜옵텍이오스코리아	T. 02) 755-3868

경기 지역

주식회사 토스	T. 031) 242-0422
한백광학	T. 031) 393-3737
㈜정인광학	T. 032) 513-0008

대전 지역

주식회사 비젼옵티칼	T. 042) 635-3005

광주 지역

로얄상사	T. 062) 264-0105

부산 지역

대림옵티칼	T. 051) 465-2112
서울광학	T. 051) 243-3991



▲ 수산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발하는 관련 유튜브 영상.

'신뢰' 잃으면 고객이 떠난다

고객을 내쫓는 용산 수산시장의 '저울치기'

한때 '회를 제대로 먹으려면 그곳이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노량진 수산시장.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에게 불신을 받으면서 사정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각종 미디어에서 수산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저울 눈금을 속이는 기만행위가 비일비재 하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은 것이다. 최근에도 어느 유튜브는 수산시장의 많은 상인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일명 '저울치기'를 보도해 조회수가 210만회를 넘기도 했다. 이 방송은 많은 상인들이 고객이 고른 수산물의 중량을 부풀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울치기를 한다고 고발했다.

일부 상인들은 '나 혼자 양심을 지킨다고 저울치기를 안하면 많이 손해 보는 기분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몰래하고 있다' '저울치기 악순환이 계속되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인은 물론 전체 상가가 망한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등 상인들 스스로 저울치기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눈앞의 이익을 앞세운 눈속임 상술이 결국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그렇다면 안경원은 어떨까.

전국 곳곳에서 나부끼는 '안경테 • 선글라스 80~90% 파격할인' 현수막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은 안경원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또 고객들은 안경원의 안경가격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혹시 안경원이 고객의 발길을 스스로 되돌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경원의 철저하고 완벽한 가격정찰제 시행. 소비자의 안경원에 대한 신뢰는 철저한 가격정찰제에서 시작된다.

---

tip. 수산물의 '저울치기'란?

수산물의 '저울치기'는 중량을 부풀려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사기행위다. 대표적인 저울치기는 파닥거리는 생선을 잡는다면서 무게를 잴 때 손으로 생선을 누르거나 뜰채를 그대로 저울에 올려둬 실제 무게보다 많이 나가게 한다. 최근엔 600~800g, 많게는 1.2kg 무게의 바구니를 생선 중량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특허출원
제 10-2020-0092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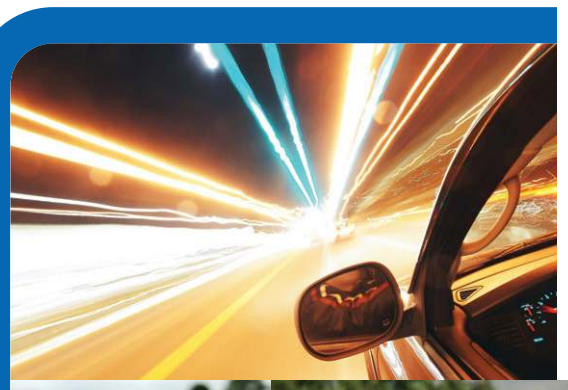
안경렌즈 세균 공포 끝!

이제, 모든 가디안렌즈는 항균렌즈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능에 기능을 더하다!

국내의 기능성 안경렌즈 대표업체 가디안과 항균코팅제조업체 서울뉴텍옵티컬에서 야간전용 누진 V-Y2와 골프전용렌즈 G-K3 렌즈에 항균코팅을 적용한 신제품을 절찬리에 판매합니다.

2014년 서울뉴텍옵티컬에서 개발되어 반복된 시제품을 거쳐 마침내 개발된 항균코팅렌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KCL-FIR-1003:2011 시험방법에 의한 녹농균과 황색포도상구균 검사에서 99.9% 세균이 차단 •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야간전용 항균렌즈 Y2
골프전용 항균렌즈 K3
평면 출시!






가디안 항균코팅렌즈 3大 만족

1. 녹농균 · 황색포도상구균 99.9% 완벽 차단!
2. 기존과 비슷한 착한 가격대로 판매 단행!
3. 코로나19로 힘든 안경원에 최고 아이템 급부상!

가디안



'세이코', 엄선한 안경원만 집중 육성한다!

선정된 안경사에겐 '세이코 비전 스페셜리스트'로 막강 지원… 최고 기능의 럭셔리 렌즈 라인업 확대 결실

세계 안경광학사(史)에서 SEIKO는 기념비적인 기술 '단면비구면' '양면비구면' '내면프리폼 누진렌즈'를 최초로 선보였다. '정밀함'을 브랜드의 테마로 삼아 프리미엄 안경렌즈의 전통과 가치를 추구하는 세이코는 국내 안경시장에서 폭넓은 인지도와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유명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이코는 이번 9월에 대대적인 라인업 확장에 이어 유통 부문도 철저한 상권보호와 직영화 정책을 통해 선택된 안경사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글로벌 럭셔리 안경렌즈의 재탄생을 선언했다.

▶완벽한 누진렌즈 라인업 구축

세이코의 대표적인 차별화 테크놀로지인 크로스 서페이스(Cross Surface Progressive)와 내면누진렌즈 시리즈의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여 프리미엄 고객에게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최고 만족도를 제공한다.

세이코는 이달의 신제품 중 시야폭 확장과 양안 시야의 개선을 위한 프라임 엑스(Prime X)와 프라임 엑시드(Prime Xceed), 사물의 배율 차이를 완벽하게 보정한 퍼슈트 NVX(Pursuit NV-X)를 개발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세이코 누진 시리즈는 세이코 최상위 코팅을 기본으로 채택해 제품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프리미엄 렌즈 시장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능성렌즈 • 단초점렌즈 경쟁력 확보

앞으로 세이코는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기능성렌즈와 단초점렌즈 시리즈에도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줌(Smart Zoom)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능성 안정피로개선렌즈'로 4가지 기능 도수(0.50, 0.75, 1.00. 1.25)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시생활 환경에 대처한다. 또한 세이코는 실내전용 누진렌즈 Indoor 100, 200, 드라이브 렌즈 등을 추가했고, 특히 개인맞춤 내면비구면 렌즈 아이엑시드(I Xceed)는 세이코 A-Zone과 더불어 프리미엄 단초점렌즈의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렌드에 적합한 다양한 옵션과 코팅 확대

호야렌즈의 SENSITY 변색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대부분의 제품에 변색 옵션을 채택한 세이코 변색렌즈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편광렌즈 기술인 폴라씬(Polar-Thin)에 의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편광 기능을 제공한다.

세이코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대대적인 변화 추구는 단순하게 신제품을 추가하거나 정책적 변화에 한정하지 않는, 즉 세이코를 취급하는 안경원과 안경사를 엄선해 '세이코 비전 스페셜리스트'로 육성 • 지원하는데 있다"며 "자사는 이를 통해 세이코 브랜드 판매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특성화 안경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2)362-8226

"호야의 신제품 전 국 출 시"

찐 한국인 맞춤 누진렌즈

발란시스 KR 임상사례 공모전



기간 2020년 10월 15일 도착분까지

대상 2020년 8월 20일 이후 판매된
"발란시스 KR"제품의 임상사례

상품
- 1등 30만원 상품권 (1명)
- 2등 10만원 상품권 (5명)
- 3등 2만원 상품권 (10명)
- 참가자 전원 커피 쿠폰 (1인 1회)

문의 1588-5911 교육팀

접수 Asia-HOLK-TRAINING@hoya.com

발표 2020년 11월 17일 (화) 당첨자 개별 연락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

주의사항

1. 2020년 8월 20일 이후 판매분 부터 인정됩니다.
2. 안경사 한분이 다양한 사례로 여러 번 참여가 가능합니다.
3. 기재사항을 자세히 적어주실수록 당선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4. 공모전 양식은 호야로그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접수된 사례는 호야에 귀속됩니다.
6. 클레임, 재주문 렌즈는 성공사례에서 제외됩니다.

"발란시스 KR은 호야렌즈와 **직접** 거래하시는 안경원에만 제공됩니다."

HOYA